

9/29(수) 데살로니가후서 묵상 6

데살로니가후서 2:13-1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핵심적인 교훈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바울의 감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첫째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거룩’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엡 2: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됩니다(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영광을 뜻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의 날에 참여하게 될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로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하늘의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날이기도 합니다(고전 15:49,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육체는 이 땅에서 안식하고 그 영혼은 즉시로 아버지의 품에 가게 되지만 최종적인 구원의 영광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만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아직은 최종적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당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면서 그들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 먼저 그들이 ‘굳건하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원어의 능동태적 표현으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임박한 위기와 환난에 대비하여 신자가 적극적인 영적인 자세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적군의 침입에 대비한 경계병의 자세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굳건하게 서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가 가르치고 보낸 편지에 담긴 전통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사도들에게 계승된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도 바울의 편지도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승한 복음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66권 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신적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딤후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굳게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됩니다(16-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위로’는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좋은 소망’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소망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 한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꽃 길만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만 보아도 바울은 ‘위로와 소망’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 우리 신자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은 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자로 부르시고 환난과 광야 가운데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좋은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관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광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과 세상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대로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망과 영광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빌 1:27상,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 인구의 0.1%이하의 종족을 ‘개척종족그룹’(Fioneers People Group, FPG) 이라고 한다.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로는 외부의 도움이 없는 복음을 들을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개척종족그룹에 속한 이들을 위한 현장사역자는 전 세계 사역자 중 겨우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음악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파키스탄 최아브라함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